2021 년도 신규도선사 미니인터뷰



편집실

올해 2월, 2021년도 신규도선사 14명이 6개월간의 도선수습을 거쳐 마지막 관문인 실기 및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도선사 국가면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선수습생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처음 해보는 도선수습업무에 집중하랴 방역과 건강관리에도 힘쓰랴 노고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무를 차근차근 배워나간 만큼 위기에 더욱 강한 멋진 도선사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항만 곳곳에서 활약할 신규도선사를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Q&A

Q.1~3 필수응답
Q.4~8 중 원하는 문항 선택 응답

Q1. 간단프로필

Q2. 도선사가 된 소감

Q3. 나는 도선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것'부터 시작했다.
(시험 접근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 문항을 포함)

Q4. 도선사시험 이것만은 꼭! (ex.간단한 조언이나 나만의 합격비결)

Q5. 도선실무수습(6개월)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Q6. 나의 좌우명, 나의 꿈 (ex.인생목표)

Q7. 요즘 관심사 (ex.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 소개)

Q8. 내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부산항
최지웅 도선사

A1. 1970년생, 한국해대 46기
A2.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기쁩니다.
A3. 국제규칙, 운용책, 각종 법규를 출력하여 공부계획을 세웠습니다. 합격자에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공부는 '3333전략'으로 했는데,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했습니다.
A5.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새벽5시까지 출근해서 수습에 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A6. 성공하는 방법을 찾기보단 실패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자. 안전도선을 이루어 본선 선장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도선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A8.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항
김재성 도선사

A1. 1974년생, 한국해대 50기
A2. 필기합격자 발표 날은 기뻤습니다. 여동생이 전화해 펑펑 울 때는 덩달아 코끝이 찡했습니다.
A3. 도서관 열람실에서 관련 책들을 펴 놓고 노려보며 '이걸 해야되나' 하는 고민을 했다. 그 고민만 몇 달 정도 했습니다.
A4. 준비기간 1년 이내 초시의 경우, 선택과 집중. 그 이상은 다양한 주제와 패턴으로.
A5. 수습 시작 3일째 새벽.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몸을 굴려 침대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공부한다고 두문불출했더니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수습전 체력관리가 필수입니다.



부산항
김성민 도선사

A1. 1980년생, 한국해대 57기
A2.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기쁩니다.
A3. 선박 조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국내외 시중의 이론서를 구매하여 한 권씩 차분히 보았습니다. 동일한 선체 운동 현상에 대하여 각 책마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A7. 체력 키우기
A8. 그동안 홀로 양가 부모님 대소사 다 챙기며 귀염둥이 아들 훌륭히 잘 키워준 아내 연정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



부산항
김세훈 도선사

A1. 1982년생, 한국해대 57기
A2. 도선을 위해 승선할 때마다 꿈꾸는 것 같고, 행복합니다.
A3. 선박조종 교과서들의 목차와 해사 관련 법령 제목명을 외우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 영어 독해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A4. 서술형 시험은 출제자에게 내 답안을 평가 받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족하는 답이 아닌 시험문항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출제자를 만족시키고 설득시키는 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5. 도선사로서의 Routine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A7. 그동안 승선하느라 중단했던 바이올린 레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항
이 석 도선사

A1. 1975년생, 한국해대 50기
A2.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 같아 기뻤습니다.
A3.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서적,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정독했습니다.
A5.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고 도선계획을 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A6.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A8. 기다려준 와이프 감사하고 남은 인생 재밌고 의미 있게 살자.



울산항
송형준 도선사

A1. 1975년생, 해양수산연수원 9기
A2. 진심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A3. 기출문제 분석 및 방향 설정
A4. 하면 반드시 된다, 시기의 문제일 뿐!
A8. 강성진 교수님 & 강지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울산항
최형주 도선사

A1. 1980년생, 한국해대 55기
A2. 아직도 꿈만 같다.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자는 맘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어느새 도선사라는 목표점에 도달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놓지 않고 달렸던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A3. 시험출제범위를 확인하였고 범위에 맞는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A6.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앞으로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A8. 목표설정과 시행착오 시 조언을 해주며 나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내와 힘든 시기에 웃게 해주었던 딸,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애야, 유빈아, 유준아 사랑한다~~



평택당진항
문태림 도선사

A1. 1976년생, 한국해대 51기
A2.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A3. 주거지를 옮기고 관련 서적을 반복해서 정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4. 반복하여 관련 서적 정독 및 자신만의 자료를 작성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해가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A5.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으나 수습 중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력,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8. 장기간 함께 준비한 목포항 이용섭 도선사에게 수고 많았고 많이 도와줘서 매우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산항
신기영 도선사

A1. 1974년생, 한국해대 49기
A2. 개인적으로 많이 기쁘지만 명성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단 생각도 듭니다.
A3. 과목별 기본서 위주로 정리하여 익힌 후 모의고사 풀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A4. 마음의 평정심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A8.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산항
주종호 도선사

A1. 1981년생, 목포해대 48기
A2.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3. 규칙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운용 책을 계속 탐독했습니다.
A4. 아는 것이 많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는 지를 보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숙고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7. 웨이트 트레이닝, 독서
A8. 도선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면서 휴가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승선하는 남편과 아빠를 이해해준 아내와 영서, 현서, 시영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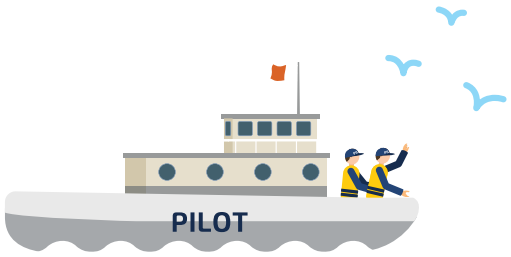
대산항
구진용 도선사

A1. 1962년생, 한국해대 37기
A2. 주니어 사관 때부터의 꿈을 이루게 되어 한풀이가 되었습니다.
A3. 첫 페이지부터 시작!!!!(서두름을 방지 하고자)
A4. 특별한 왕도가 없으니 차분히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적당한 긴장을 항상 유지하시길...
A5. 발목 부상으로 마지막 한 달 반 기간 동안 맥없이 지냈던 기간
A6. 역지사지, 끝까지 건강하고 멋지게 살자.
A8.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가족들 및 항상 긍정적인 희망을 주신 선배 도선사들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항
김승한 도선사

A1. 1975년생, 한국해대 50기
A2. 코로나로 인해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A3. 우연히 승선한 배에 도선사자료가 있어 그걸로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먼저된 동기 도선사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A6. 무사고 은퇴
A7. 해외여행



Q1. 간단프로필
Q2. 도선사가 된 소감
Q3. 나는 도선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것'부터 시작했다.
(시험 접근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 문항을 포함)
Q4. 도선사시험 이것만은 꼭! (ex.간단한 조언이나 나만의 합격비결)
Q5. 도선실무수습(6개월)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Q6. 나의 좌우명, 나의 꿈 (ex.인생목표)
Q7. 요즘 관심사 (ex.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 소개)
Q8. 내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포항항
박철홍 도선사

A1. 1979년생, 목포해대 45기
A2.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A3. 선장경력 채우기
A4. 아내의 조언으로 벼락치기가 아닌 장기간의 꾸준한 학습을 실천하였습니다.
A6.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 -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라.
A7. 도선 완료 후 내 도선을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
A8.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윤정씨, 당신의 내조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절대 오지 못했다고 나는 감히 장담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사랑합니다~~



목포항
이용섭 도선사

A1. 1976년생, 한국해대 51기
A2. 내 눈에 휴식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를 쿨하게 버렸습니다.
A3. 첫째, 나 자신을 믿습니다. 둘째, 교재의 첫 페이지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셋째, 시험을 마치고 씨익 웃습니다.
A5.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적응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A6. 정직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폼나게 살자
A7. 요즘 제 관심사는 기타(GUITAR), 골프 유투브시청, 전기차
A8. 도선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남악캠프에서 희로애락을 같이한 평택의 문태림 도선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전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는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